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인과론적(因果論的) 이해

김재천

(한국·대진대학교)

《요약》

Daesoonjinlihoe and Buddhism have found the cause of grudge and agony in the human mind. Fundamentally human being suffers grudge and agony which man in it self makes unless he acquire what he wants. So if human being recognizes the cause of that, the cause would disappear. And there are certainly needed regulation of 'dosu' in Daesoonjinlihoe. That implies the limitation of human effort. The worlds of heaven, earth, human being have to stand up in the same time, and there would appear paradise. In that case human being and the world of divinities are able to be relieved. Compared to that, Buddhism does not admit other Power without human effort and cultivation on oneself.

Epistemological awakening of the 'solution of grudge(haewon)' and mokṣa accompany the 'saving each other(sangsaeng)' and maitrī·karuṇā. 'Haewon' and 'sangsaeng' have causal relation, further more epistemological awakening of 'haewon' and practical virtue of 'sangsaeng' would not be detached.

I. 머리말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 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교운, 1장 32절)”라고 하여, 이 시대를 해원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해원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요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

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품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되는 것이다”¹⁾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마음과 해원 그리고 상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대방과 맺힌 한을 풀게 되고, 이를 통해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원과 상생의 중층적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를 마음과 인과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불교의 대응적 개념을 배치하여 해원과 상생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해원은 원을 전제로 하므로 원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불교의 번뇌와 고의 내용을 현상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이나 번뇌 그리고 고를 여의는 이상적 마음의 상태를 각각의 교의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신론과 무신론에서 오는 세상의 이치와 진리관에 대한 양자의 근본적 차이를 도수와 연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근간으로 상생과 자비의 실천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II. 해원(解冤)의 인과론적 이해

- 원과 번뇌가 있어 해원과 해탈이 있다. -

1. 원(冤)과 고(苦)

《전경》에서는 원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7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²⁾

여기서 인간의 파멸과 불행의 기원을 문명의 시초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1)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27쪽.

2) 공사, 3장 4절.

있다. 원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함으로써 인간을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경》에서는 이어서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였도다”³⁾라고 하여, 인간의 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명의 조화와 도수의 조정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의 해소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에서는 임진란 이후 일본 도술 신명이 뜻을 이루지 못함에 조선에 가지는 원⁴⁾, 상제님을 따르면서도 12개국의 천자를 원했던 차경석의 원⁵⁾,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뜻을 두고 노력하던 전명숙의 원⁶⁾,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이마두(利瑪竇)의 원⁷⁾,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뜻을 둔 진묵(震默)대사의 원⁸⁾ 등 수많은 원의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저열한 것이든 고귀한 것이든 간에 자신의 바라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때, 깊은 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이 갖고 있는 속성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⁹⁾, “이웃 사람이 주는 맛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별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¹⁰⁾ 등과 같이 인간이 간과하고 지나 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까지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이 원으로 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늘과 땅까지 원의 범주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주장하고 있다.¹¹⁾ 그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¹²⁾거나, “한 사람의 품은

3) 공사, 3장 5절.

4) 공사, 2장 4절.

5) 공사, 2장 19절.

6) 교법, 1장 2절.

7) 교운, 1장 9절.

8) 권지, 2장 37절.

9) 예시, 58절.

10) 교법, 2장 46절.

11)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 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子改之, 吾心之樞門戶道路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12) 공사, 3장 29절.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¹³⁾라고 하여 인간의 원과 한과 고통과 번뇌가 바로 그 마음을 발원지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원에 해당하는 불교의 개념으로는 고(苦, duḥkha) 또는 혹(惑), 염(染), 염오(染汚)라고도 번역되는 번뇌(kleśa)를 들 수 있을 것이다.¹⁴⁾ 먼저 번뇌라는 말은 원래는 ‘괴롭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인간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악과 같은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해탈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선(不善)과 부정(不淨)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며, 인간의 심신을 괴롭히고 악을 이루게 하는 정신의 상태일반을 표현하는 말이다. 불교는 원래 현실의 자기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완성된 상태가 되도록 지향하는 종교이므로, 그런 입장에서 인간의 심리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 환경에 대한 관찰이 행해져왔다. 불교경전 속에 보이는 번뇌에 대한 여러 설들도 그런 목적을 위해 인간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설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번뇌는不善의 행위를 이루게 하는 원인이 되고, 윤회의 생존과 결부시켜 해탈을 위한 수행을 방해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제거될 때,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원시불교에서 들고 있는 번뇌에는 탐(貪, rāga) · 진(瞋, dveṣa) · 치(癡, moha)가 있다. 이는 3불선근(不善根) · 3독(毒) · 3구(垢) · 3화(火)라고도 하는데, 탐은 마음에 드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고, 진은 탐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를 의미하며, 치는 삼법인이나 연기 등과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도리에 대한 무지(無知)를 가리킨다. 여기서 치는 12연기의 무명(無明, avidyā)과 통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강한 집착에 의해 바른 도리가 감추어져 잘못된 판단과 분별을 일으키는 일체 번뇌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므로 번뇌를 끊는 방법은 지혜뿐이다. 마음이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해방되면, 법의 이상적인 작용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¹⁵⁾

다음으로 고라는 것은 락(樂)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심신을 꺾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무상(無常)한 것은 고(苦)이다”, “고인 것은 무아(無我)이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는 무상과 무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정도론(淸淨道論)》에서는 고를 혐오와 공허로 나누어, 혐오되며 상락아정(常樂我淨)이 없는 공허한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⁶⁾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행해져 고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2고라는 것은 자기의 심심

13) 교법, 1장 31절.

14) 高崎直道 編, 《佛敎·インド思想辭典》, 東京: 春秋社, 1987, 427-428頁.

15) 전치수 편역, 《불교학의 기초지식》, 불교사상연구소, 1992, 214쪽.

16) 高崎直道 編, 앞의 책, 88~89頁.

에서 일으키는 내고(內苦)와 밖에서 받는 악적(惡賊)이나 천재(天災) 등의 외고(外苦)를 가리킨다. 또 3고는 한열(寒熱) 등 외부로부터 받는 고고(苦苦), 마음에 드는 것의 파괴에서 받는 괴고(壞苦), 유위법의 무상천동(無常遷動)에서 느끼는 행고(行苦)를 말하고 있다. 나아가 4고란 생·노·병·사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에 애별이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를 더하여 8고라고 한다. 불교의 진리관인 사제(四諦)에서 고제는 인생의 현실이 무상·고·공·무아의 행상(行相)을 가짐을 말하고, 집제(集諦)는 고의 원인이 갈애(渴愛)에서 기인하는 모든 인연의 집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 세상의 고통은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갈애는 12연기의 무명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모든 번뇌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욕애(欲愛)와 유애(有愛)와 무유애(無有愛) 등 3애(愛)가 있다. 욕애는 감각적 욕구에 대한 갈애로서 현세에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애욕이다. 유애는 존재에 대한 갈애이며, 사후에 천국 등에서 뛰어난 존재로 태어나려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나 천국도 윤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최고의 이상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갈애의 번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유애는 비존재, 즉 허무에 대한 갈애를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허무계에 대한 무유애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애의 번뇌로 보았던 것이다.

2. 해원과 해탈(解脫)

마음의 원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해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전경》에서는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¹⁷⁾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실천적인 예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천원(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는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은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¹⁸⁾

17) 교법, 2장 16절

18) 교법, 3장 12절.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중구(金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피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헤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¹⁹⁾

즉 원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과 언행에서 찾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원은 풀어지고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로함으로써 원을 해원으로 돌리는 데 대한 언급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²⁰⁾,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²¹⁾,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²²⁾,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²³⁾ 등과 같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전경》에서는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²⁴⁾라고 하여 마음에 품은 원한을 먼저 스스로 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²⁵⁾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원은 산 자에 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으니 다음의 예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피노리(避老里) 이화춘(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

19) 교법, 2장 28절.

20) 교법, 1장 34절.

21) 교법, 1장 56절.

22) 교법, 1장 56절.

23) 교운, 1장 66절/ 玄武經.

24) 교법, 3장 24절.

25) 예시, 8절.

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넝 장을 청 흥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중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 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²⁶⁾

이는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²⁷⁾, 또는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²⁸⁾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해원사상은 이승과 저승을 모두 포함하여 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해원이 된 세상에 대하여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되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²⁹⁾고 하거나,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쥐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³⁰⁾고 하여 마음의 모든 원과 한이 사라진 이상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해원은 불교에서 해탈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해탈(mokṣa, mukti, vimukti)은 인도의 거의 모든 종교사상에서 인간의 구경(究竟)의 목표로서 구해지는 이상의 경지를 가리키는데, 이는 법(dharma), 이익(artha), 성애(kāma)와 더불어 인간의 4대 목적의 하나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해방과 자유를 뜻하며, 소극적으로는 인생의 고통이나 죄에서의 이탈, 적극적으로는 진실한 자기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욕을 떠나 집착없이 모든 루(漏)에서 해탈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마음이 모든 번뇌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로서, 열반(nirvāna)이나 깨달음과 같은 말이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즉 마음을 번뇌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마음

26) 공사, 3장 2절.

27) 교법, 1장 29절.

28). 교법, 2장 44절.

29). 교법, 1장 67절.

30). 교법, 1장 9절.

속에 있는 번뇌를 단멸하고, 번뇌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 대상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한다. 열반이란 말은 ‘불어 꺼진 상태’라는 의미로서 번뇌의 불을 불어서 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계(戒)를 지키는 생활을 갖추고, 마음을 집중하여 정(定)에 들고, 삼법인이나 사제 등을 수습(修習)하여 지혜(知慧)를 닦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나 열반은 지혜(prajñā, jñāna)의 산물이다. 그래서 지혜에는 세속적인 지혜, 초보적인 깨달음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 벽지불의 지혜, 보살의 지혜, 붓다의 지혜 등 여러 등급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붓다의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는 유분별지(有分別智, savikalpa-jñāna)와 무분별지(無分別智, nirvikalpa-jñāna)로 구분하기도 한다.³¹⁾ 전자는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여 대립하고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과 일체가 된 경우를 말하고 있다. 무분별지는 무아와 공의 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데에서 나아가 무집착의 무애자재한 태도이며, 힘과 마음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법에 맞는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러한 무분별지를 획득한 자는 그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하게 된다. 즉 지(智)는 자비(慈悲)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양자가 괴리된 상태는 아직 불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상생(相生)의 인과론적 이해

- 도수(度數)와 연기법(緣起法)이 있어 상생과 자비행이 있다 -

1. 도수와 연기

《전경》에서는 도수의 조정으로 인한 천지의 개벽과 선경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³²⁾ 이는 해원으로 인한 선천의 개벽이 이루어지려면 도수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유신론적 견해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명계와 인간계의 상호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³³⁾ 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천과 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31). 전치수 편역, 앞의 책, 201-202쪽.

32) 공사, 3장 5절.

33) 교법, 1장 54절.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³⁴)하고 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은 하늘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 호응하여야 새로운 세상의 도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니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 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³⁵)고 하여, 이제 하늘의 도수는 세워졌으니 인간이 이에 응하여 해원의 마음 바로잡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에 선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오.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³⁶)라고 하여, 이제 모든 것은 인간의 할 바에 따라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³⁷)는 말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에서는 도수의 조정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³⁸)

세상이 혼란에 지배되고 있는 연유에 대해,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³⁹)라고 하고, 이에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⁴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司命)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

34) 예시, 6절.

35) 공사, 1장 32절.

36) 교법, 3장 35절.

37) 교법, 2장 56절.

38) 공사, 1장 3절.

39) 예시, 8절.

40) 예시, 10절.

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⁴¹⁾라고 하고 있으며, 결국 세상은 순리대로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꽃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⁴²⁾의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수화금목은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물은 불에서 생겨나므로 천하에 상극의 이치는 없다)”⁴³⁾라고 한 것처럼, 원에 의한 상극이 아니라 해원에 의한 상생이 이루어지는 후천의 세상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도수의 조정은 무계획적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습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⁴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건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⁴⁵⁾라고 한 것처럼, 도수의 조정은 치밀하게 현실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제민족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살려내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⁴⁶⁾라고 했듯이, 도수의 조정에서도 해원과 상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쌍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⁴⁷⁾라고 한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언명일 것이다.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 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

41) 예시, 30절.

42) 행록, 5장 38절.

43) 교운, 1장 66절.

44) 예시, 13절.

45) 교법, 3장 23절.

46) 예시, 12절.

47) 예시, 9절.

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⁴⁸⁾라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 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⁴⁹⁾라고 한 것도 기존의 세상 문명과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고, 이는 역시 해원과 상생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모순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수로 짜여진 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셀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드나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⁵⁰⁾

즉 새로운 시대에 인간이 행할 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세속적인 부나 권력이나 성공에 매달리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⁵¹⁾라고 하여, 선천에서 한에 얽혀있던 인간들이 이제 후천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⁵²⁾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천지공사나 도수의 조정과 같은 역할을 할 신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우주불변의 법칙이 있을 따름이니, 그것이 연기(緣起, *pratītyasamutpāda*, 因緣)이다. 그것은 ‘연하여 일어난다’는 뜻으로, 마음의 작용이나 행위나 생존 속의 다양한 존재나 상태나 운동에 대해 그 하나하

48) 교법, 3장 38절.

49) 교운, 1장 41절.

50) 교법, 3장 4절.

51) 교법, 3장 1절.

52) 예시, 7절.

나에 일종의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관계성을 지우는 사상이다.⁵³⁾ 현상은 무상하고 항상 생멸변화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는 무케도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의해 일정한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이 운동법칙이 바로 연기이다. 이 법칙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 안하든 그에 관계없이 법으로서 결정된 것에 조건지어지는 성질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연기는 여러 조건에 의해 현상이 일어나는 생기의 방법과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⁵⁴⁾ 연기사상은 불교의 시작인 곱와 마지막인 해탈로 확대되어, 그 사이의 모든 번뇌나 집착 등에 의한 미혹, 그리고 그로부터의 이탈이나 해방 등까지 포함하면서 심화되어 불교의 기본 교설이 되고 있다. 연기설은 특히 용수(龍樹, Nāgārjuna)에 의해 예리하게 논구되어 철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기는 상의상관(相依相關)의 무자성(無自性)과 공(空)사상으로 해석되어 모든 것을 실체시키는 이전의 관념을 근본부터 뒤집고 있는 것이다.

연기설은 불교의 중심사상으로 우주나 인생의 현상에 나타나는 운동과 변화를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인 관계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인생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주나 인생에 대한 단지 객관적인 입장의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여 우주와 인생의 법칙을 고찰한 것이다.⁵⁵⁾ 어쨌든 연기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12연기로 정립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가 그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무명(avidyā)은 무지(無知)하여 사제나 연기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 행(saṃskāra)은 신(身)·어(語)·의(意) 3업을 말하며,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잘못된 신업·어업·의업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식(vijñāna)은 인식주관인 6식(안·이·비·설·신·의)을 가리킨다. 명색(nāma-rūpa)은 식의 대상인 6경(境: 색·성·향·미·촉·법)을 뜻한다. 육처(ṣaḍ-āyatana)는 6근(根: 안근·이근·비근·설근·신근·의근)을 말하며, 감각이나 지각능력을 가리킨다. 촉(sparśa)은 근·경·식 3자의 화합을 말하며, 근·경·식으로부터 감각이나 지각에 의한 인식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수(vedanā)는 고(苦)·락(樂)·불고불락 등을 느끼는 것으로, 안·이·비·설·신·의 각각과 접촉하여 생기는 6수를 말한다. 같은 사물을 인식하더라도 어떤 이는 락이라 느끼고, 어떤 이는 고타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인식주관인 식이 과거의 무명이나 행에 의해 탐욕과 진애 등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trṣṇā)는 갈애로서 격렬한 욕구를 뜻한다. 인식에 의해

53) 高崎直道 編, 앞의 책, 41-42쪽.

54) 전치수 편역, 앞의 책, 149-150쪽.

55) 위의 책, 151-152쪽.

56) 위의 책, 161-164쪽.

고락 등의 느낌이 생기는데, 이때 고의 느낌에 대해서는 피하려는 강한 욕망이 생기고, 락의 느낌에 대해서는 구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이렇게 고락의 느낌에 대해 애증이 생기는 강한 욕구와 열망이 갈애이다. 취(upādāna)는 애 뒤에 생기는 취사선택의 실천적 행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몸과 언어에 의해 좋아하는 것은 탈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행동이다. 이에는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사기 등이 속한다. 유(bhava)는 넓게는 현상적 존재라는 말로서, 이에는 욕유·색유·무색유가 있다. 생(jati)은 유정(有情), 곧 생명체가 다른 유정으로 태어나거나, 일상생활 중에 별개의 경험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전자는 유정이 과거의 모든 경험의 여력으로서의 지능이나 성격 또는 체질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이다. 후자는 그 유정의 소질[有]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이 탄생하는 경우이다. 양자 모두 유라는 소질로부터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노사(jarā-marāṇa)는 생후에 생기는 고를 말하며,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해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명·행이나 애·취·유 등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에 의해서는 반드시 고뇌를 받게되고, 삼계윤회의 일체의 고뇌는 무명이나 갈애 등의 번뇌나 행·취·유 등의 업을 원인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연기설인 것이다.

2. 상생과 자비(慈悲)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⁵⁷⁾라고 하고 나서,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⁵⁸⁾라 하여, 후천 선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로 후천 선경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의 장인 것이다.

후천에서 인간 세상의 달라짐은 남녀, 빈부, 귀천을 차별하여 가리지 않는 평등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그 전제로서,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소조(吉星所照)라고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57) 예시, 17절.

58) 교법, 2장 55절.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⁵⁹⁾라 하고, 또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느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⁶⁰⁾라고 경계하고 있다. 후천이 후천인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생각이 바로 후천선경을 만드는 원천인 것이다. 이는 인간의 끊임없는 수양과 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도수의 조정에 의한 삼계공사도 인간의 노력없이 그 결실을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께서 형렬에게 교훈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라. 아직도 남아 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에 힘쓸지어다. 호한 신천 유불사(呼寒信天猶不死)이니라’”⁶¹⁾라고 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삶으로서 우선 남녀평등의 실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⁶²⁾라고 한 것이나,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⁶³⁾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⁶⁴⁾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지위를 오히려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⁶⁵⁾하는 세계관의 반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적 귀천의 차이를 타파하는 뜻에서,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에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59) 교법, 2장 20절.

60) 교법, 3장 15절.

61) 교법, 3장 9절.

62) 교법, 2장 57절.

63) 교법, 1장 68절.

64) 예시, 45절.

65) 교법, 1장 62절.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⁶⁶⁾라는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⁶⁷⁾라고 하여, 이는 단지 적서와 반상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 남을 잘되게 한다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실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말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⁶⁸⁾라고 하고, 또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갈지니라 하셨도다”⁶⁹⁾라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사람의 도리와 직결되니,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 의세(濟生 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 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⁷⁰⁾라는 언명이나,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⁷¹⁾, 또는 “상제께서 장익모(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써 부모를 잘 공양하라’ 하셨도다”⁷²⁾라는 데에서 상생사상의 전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생의 실천은 불교에서는 자비(慈悲: maitri와 karuṇā)로 해석할 수 있다. 이

66) 교법, 1장 10절.

67) 교법, 1장 2절.

68) 교법, 1장 57절.

69) 교법, 2장 50절.

70) 교운, 1장 16절.

71) 교법, 1장 38절.

72) 교법, 1장 41절.

는 지혜와 한 쌍으로 불교사상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⁷³⁾ 여기서 자(慈, maitrī)는 ‘우정’이나 ‘친애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비(悲, karuṇā)는 ‘불쌍히 여김’이나 ‘동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마음의 작용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불교의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가령 최고(最古)의 경전인 《숫타니파타》(149~151)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을 바쳐 보호하듯이, 일체의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또 전 세계에 대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갖도록 수행해야 한다. 위로 밑으로 또 옆으로 장애없이 원망없이 적의없이 자애를 실천해야 한다. 서있을 때나, 걷고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자고 있지 않은 한은 이 자애의 마음씀을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 상태를 청정한 경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와 비의 사상은 희(喜, mudita)와 사(捨, upekṣā)와 더불어 4무량심(無量心)으로 체계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량의 중생에게 편안함을 주고, 고통을 제거하고, 그 실현을 기뻐하고, 애증을 떠나 평등한 마음을 지키도록 사념(思念)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불교의 자비사상은 자이타(自利利他)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에서 본격적인 교리적 발전을 보게된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탐(貪)·진(瞋)·치(痴)와 무지(無知)가 사라짐으로써 생사의 괴로움을 초극하는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자연히 출세간(出世間)적인 성격을 띠어 현실세계와 괴리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를 상의상관(相依相關) 속에서 파악하여 양자에 대한 분별(分別)과 식별을 떠나야 진정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것을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야바라밀다(prajñā pāramita)는 이러한 공사상에 근거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가리키는 말이다. 반야바라밀다의 깨달음 곧 해탈을 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보살(bodhisattva)이다. 보살은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나와 남 등의 모든 분별을 떠난 수행을 할 뿐 아니라 그 수행의 공덕조차도 중생계에 회향(回向)한다.⁷⁴⁾ 그래서 보살은 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4가지 큰 서원[사홍서원(四弘誓願)]⁷⁵⁾을 세우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상구보제(相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의 실천이 강조되어, 지혜없는

73) 高崎直道 編, 앞의 책, 180-181쪽.

74)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128-129쪽.

75) 중생이 가없어도 다 건지오리다(衆生無邊誓願度), 번뇌가 끝없어도 다 끊으오리다(煩惱無盡誓願斷), 법문이 한없어도 다 배우오리다(法門無量誓願學), 불도가 위없어도 다 이루오리다(佛道無上誓願成)

실천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고 실천없는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인간세상은 원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은 모든 생명계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한과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고금동서의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그 해답을 탐구해 왔으며 과학이 지배할 것이라는 미래세계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은 단지 물질세계의 현상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법칙의 조종과 지배를 통해 물질적 만족과 풍요를 제공하는 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적 또는 육체적 조건의 충족에 안주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차원의 해법이 반드시 요청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요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과 고통의 기원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원과 고통에 쌓여있는 인간으로서 그 원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을 직시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전경》과 불교에서는 모두 인간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욕에서 발원하여 그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 만든 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나아가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 그 원망을 증폭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냉철하고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바로 그 자체로서 현실의 고통을 낳은 원인은 저절로 해소되어 원과 고통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원과 해탈은 멀리 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해원과 해탈은 사실에 대한 자각이며 지혜인 것이다.

그런데 《전경》에서는 불교와 달리 도수의 조정으로 인한 천지개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⁷⁶⁾라고 하여, 인간의 지고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의 의지력이 갖는 한계성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식과 그로 인한 해원은 그 자체로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바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과 사회의 구원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천·지·인 3계가 동시에 일어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3계를 조화시키고 화합시켜 선

76) 교법, 2장 5절.

경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놓는 것이 바로 도수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3계의 원활한 소통이 상호 호응하여야 비로소 인간자신과 세상은 신명계와 함께 모두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는 해탈을 위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수행 이외에 다른 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원과 해탈의 인식적 자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생과 자비의 실천적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 해원과 상생은 앞과 뒤의 인과론적 관계에 있을 뿐아니라, 해원의 인식론적 깨달음과 상생의 실천적 덕목은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원상생은 산 자와 죽은 자,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신명계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강영계 편저,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1999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권오민, 《아비달마불교》, 민족사, 2003
 김동화, 《불교교리발달사》, 삼영출판사, 1977
 박이문, 《종교란 무엇인가》, 일조각, 1989
 원의범, 《현대불교사상》, 집문당, 1982
 이기영, 《불교개론강의》 2권, 한국불교연구원, 1998
 전치수 편역, 《불교학의 기초지식》, 불교사상연구소, 1992
 정승석 편,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1989
 가네코 다이에이(金子大榮), 고명석 역, 《불교교리개론》, 불교시대사, 1993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佛敎語大辭典》, 東京: 東京書籍, 1981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編, 《佛敎·インド思想辭典》, 東京: 春秋社, 1987
 마쓰야 후미오(増谷文雄), 이원섭 옮김, 《불교개론》, 현암사, 1998
 요코야마 고이츠(横山紘一), 《唯識の哲學》, 京都: 平樂寺書店, 1979
 우에야마 슌페이(上山春平)·사쿠라베 하지메(櫻部建), 정호영 역, 《아비달마의 철학》, 민족사, 1989.
 荻原雲來 편찬, 《漢譯對照 梵和大辭典》, 東京: 講談社, 1979.
 키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마쓰모토 시게루(松本滋), 최현각 역, 《종교학·종교심리학》, 불교시대사, 1993.

- E. Conze, *Buddhist Thought in India*, 안성두·주민황 역, 《인도불교사상사》, 민족사, 1988.
- F. Max Müller,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Religion*, 김구산 역, 《종교학입문》, 동문선, 1995.
- F.J. Streng, *Emptiness-A Study in Religious Meaning*, 남수영 역, 《용수의 공사상연구》, 시공사, 1999.
- J.G. Brennan, *The Meaning of Philosophy*(1967), 광강제 역, 《哲學의 意味》, 박영사, 1982.
- John H. Hick, *Philosophy of Religion*, 황필호 편역, 《종교철학개론》, 종로서적, 1980.
- K.L. Seshagiri Rao, *The Concept of Śraddhā*,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4.
- Mircea Eliade(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5vol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 T.R.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김성철 역, 《불교의 중심철학》, 경서원, 1995.
- Walpola Sri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진철승 역, 《붓다의 가르침》, 대원정사, 1988.